

# 한진중공업은 62년 동안 조선소를 성장시킨 노동자의 불법해고를 즉각 중단해라!



부산의 한진중공업(조선 부문, 부산 영도구 봉래동)은 1937년 현재 자리에서 ‘朝鮮중공업(주)’으로 출발하여 한국조선산업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2년동안 노동자들은 험악한 산재사고와 7천도가 넘는 용접, 절단화염을 견대며 한진중공업을 견실히 성장시켜왔습니다.

한진중공업(회장 조남호, 조선부문 사장 이재용)이 지난 11월 16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전자공시된 ‘2009년 3분기 보고서([2009. 1. 1 - 9.30](#))’에 따르면 2009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이 1,056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조선부문의 가동율도 신조선의 경우 86.6%\(653천G/T\)이며 특수선은 110%\(14,857 D/T\)](#)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진중공업은 지난 12월 11일 노동조합과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선부문 전직원(2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30%를 불법적으로 해고시키고, 일부 설계부서를 분사시킨다고 합니다.

## 2009년 3분기 누적당기순이익 ... 1,056억원 가동율 ... 특수선 110%, 신조선 86.6%

어이가 없습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지회장 채길용)와 맺은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협약을 어기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인력구조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진중공업은 1989년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후 해마다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998년 IMF환란 때도 71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1999년에는 망해가던 한진건설을 합병하고 나서 해마다 조선부문에서 얻은 수백억원의 흑자를 건설부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10년간 흑자규모는 4277억원이 넘습니다.

회사가 공시한 2009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이 1,686억원이 됩니다.

9월달까지 지급된 사내이사 평균급여는 1억6천 9백만원입니다.

망해가던 건설부문까지 살려놓았던 조선노동자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까?

회사는 조선부문 영업개황을 통해 ‘당사는 상대적으로 우량선주 위주의 안정적인 조업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수주잔량이 고갈된다며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안되면 정리해고 시키겠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까?

누가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진중공업은 각부서 팀장과 파트장에게 ▲조합원들의 기능을 상·중·하로 평가해서 보고할 것 ▲조합원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직종 말고 다른 기능이 있는지 확인 보고할 것 ▲희망퇴직 대상자를 파악, 보고하고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희망퇴직’을 빙자한 명백한 불법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는 한진중공업의 명백한 불법해고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에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새집행부가 취임식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목을 자르겠다는 한진중공업의 어이 없는 처사에 ‘고용안정쟁취와 구조조정분쇄 전 조합원 투쟁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강제적인 희망퇴직과 불법해고를 자행하는 회사 경영진과 모든 관리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어 응징할 것입니다.

12월, 노동조합에 새집행부가 들어서고 2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여전히 배짱만내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는 12월 18일 회사에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난 4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50%(500여명)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불법해고를 추진하던 부산의 대우버스가 7개월에 걸친 사무직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과 금속노조의 결사항전으로 구조조정을 철회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지회는 2009년 임단협 조기해결과 적정인력유지, 고용안정을 위한 모든 협약이 지켜지도록 결사항전의 자세로 끝까지 투쟁해 갈 것입니다.

## 한진중공업에 경고합니다.

회사가 밝히는 경영이념에는 ‘인재육성’과  
‘상생협력의 기업문화 구축’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희망퇴직과 불법해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